

해외 언어 · 문화연수 후기

	2022 동계방학 단기 해외언어·문화연수
연수기관	영국 Burton & South Derbyshire College
연수기간	2023. 1. 9. ~ 2023. 1. 27.
연수자	기계자동차공학부, 고재성

이번 동계 연수는 영국 더비에 위치한 BSDC학교에서 약 3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. 수업은 영국의 문화나 간단한 문법에 대해 서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생님들께서 비교적 쉬운 영어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수업 중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. 모르는 내용도 선생님이나 같이 수업을 듣는 현지인 친구들(버디)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. 다만 영국 발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발음과는 꽤 다르기 때문에 연수 가기 전 영국 발음에 대해 조금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.

학교 근처에는 Cafe Zen(주로 파니니), 맥도날드, Greggs(샌드위치), 피쉬 앤 칩스 가게 등 다양한 식당이 있었고 학교 안 Cafeteria는 급식처럼 날마다 메뉴가 다르게 나오며 매우 저렴하지만 조금 늦게 오면 줄을 서야 할 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.

수업이 월~목만 있어서 금, 토, 일은 여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. 첫 주는 런던 2박 3일, 둘째 주는 York, Scarborough를 여행했는데 영국의 바닷가를 보고 싶으시면 Scarborough에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현지인들이 가는 휴양지라 사람이 비교적 적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수요일은 오전 수업만 진행되어 12시에 끝나므로 학교 주변이나 기숙사 근처를 구경하기에 좋았습니다.

영국의 겨울은 한국보다는 춥진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며 갑자기 비가 올 때가 자주 있어서 비를 맞아도 괜찮은 옷들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특히 런던의 템즈 강 근처는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어서 런던을 여행 할 계획이시면 따뜻한 옷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.

(Brookside)는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4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. 방 안에 거실, 각자 개인 방, 샤워실, 화장실이 있고 주방에는 기본적인 식기류는 모두 갖춰져 있어서 따로 필요한 건 없었습니다. 하지만 방마다 구비되어 있는 게 다를 수 있으므로 젓가락 정도만 챙겨오면 좋을 거 같습니다. 영국에서 가장 춥다는 1월이었지만 방마다 라디에이터가 있었고 세게 틀면 더울 정도로 잘 작동되기에 추위를 잘 타는 저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. 영국은 고기나 빵류가 한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므로 기숙사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시내의 Tesco나 Aldi등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었고 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Co-op은 앞서 말한 마트보다 가격이 좀 더 있는 편이지만 물이나 디저트 정도 사기에는 괜찮았습니다.

3주라는 시간은 영어 실력을 늘리기에는 부족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버디들과 한 마디라도 더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연수 이후의 여행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게 두렵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연수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 시야를 한 층 더 넓힐 수 있어서 제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단기 연수를 고민하고 계신 학우분들이 있으시다면 기회가 있을 때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

연수사진



BSDC학교 앞



BSDC학교 정문



기숙사에서 버스 타러 가는 길



Brookside 기숙사